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성경본문 <출애굽기 40장 17절 ~ 33절>

[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 그는 또 증거판을 껍데기에 넣고 채를 껍데기에 꿰고 속죄소를 껍데기 위에 두고 [21] 또 그 껍데기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2]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8]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31]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치수하나까지도 말씀하셨고, 각 성물들을 만드는 재질까지도 친히 일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섬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모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생기면서 백성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의지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만남,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식양과 방법)에 따라서, 만들고, 예배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실재임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듭시다.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 [25]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고 행하신 것은 그 각각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사실을 세부적으로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24시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소서.
2.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